

“해외동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요즘 의료계는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달라진 의료시장 환경에 맞춘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인 '언택트'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기관도 주목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분야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명지병원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승인 의결했다.



명지병원이 지난해 10월 오픈한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원격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왼쪽)과 명지병원 전경. 명지병원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최근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원격진료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 | 명지병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의료상담·진료
코로나19 예방 위해 한정적 허용
산업부 “의료선택권 증진될 전망”
명지병원, 한인회와 버추얼케어 협약

●버추얼케어로 재외국민 긴급 이송치료

명지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에는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도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진단이나 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 규제특례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와의 외교나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안전 행위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명지병원은 지난해 10월 고양시 화정동에 설립한 MJ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지병원의 버추얼케어 서비스는 언어와 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현지에서 제 때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해외교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국내외 다른 의료 환경에 직면한 교민들에게 이러한 케어 서비스는 더욱 절실해졌다.

현재 명지병원은 미국 애틀랜타 한인

회, 하와이한인회, 과테말라한인회,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인도네시아한인회 등 북미와 남미, 태평양,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지역의 한인회와 버추얼케어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한 사전 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에어엠블런스를 이용한 긴급 이송, 치료를 버추얼케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통합 라이프케어 목표

명지병원의 버추얼케어 서비스는 단순히 해외교민 등 공간이 다른 두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의 수준을 넘어 더 큰 그림을 추구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터넷을 매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뛰어넘어 기존 오프라인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각 영역별 의료서비스

를 통합한 라이프 케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MJ버추얼케어센터는 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료는 물론이고 질병 예방과 진단·재활, 만성질환자의 일상 라이프 케어, 고위험군 환자의 상시모니터링 케어를 통한 응급상황 대처, 정신심리적인 상담, 뇌출혈과 뇌졸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의 즉각 개입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상시의료관리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오픈 이후 재외교민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의료소외 지역의 환자, 고령자,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자, 기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의료상담이 활발하다. 이를 위해 심장내과 전문의 센터장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문교수, 간호와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지금이 해외진출 추진 적기”...제약바이오협,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포럼’ 개최

24일~26일까지 유튜브서 생중계
현지 진출 경험·현지화 전략 등 공유



해외시장 진출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가별 특성과 시장 진입 노하우를 살펴보고 기업별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포럼'을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9조964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성장세가 대폭 커졌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변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들이 각자의 생산·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 현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협회가 앞장서 이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첫날인 24일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25일 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파머징 시장(약품 시장) 급성장세를 보이는 국가), 26일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본다. 현지 진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시장 진입 사례를 소개하고 로펌과 현지 컨설팅 업체 등이 현지 진출에 대한 법적 문제와 현지화 전략 등을 공유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번 포럼이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축적해온 R&D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8일 (목) 음력: 10월 1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다. 자포자기에 빠지면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늘은 재실일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이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오늘은 말의 날이다.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동을 삼가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름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오늘은 도화의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오늘은 장성일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육해일이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드리우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기운이다. 매사 초지일관 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 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살펴두어야 한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SFC바이오, 포스트바이오텍스 '포스트엠' 출시



SFC바이오는 5세대 포스트바이오텍스 '포스트엠'(사진)을 개발해 엘에스피플을 통해 12월 출시한다.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사균제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위 건강 및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는 성분까지 더해 5세대 유산균이라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위장 건강을 위해 SFC바이오의 특허 천연물질인 베타카리오플렌 함유 정향추출분말과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복합분말을 더했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HPMC 등 부형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현대약품, 수능 수험생 365MEAL 1+1 프로모션

현대약품은 30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간편 대용식 365MEAL 패키지 품목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65MEAL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네이버 특약을 통해 수험표를 인증하고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7일 패키지부터 30일 패키지까지 365MEAL 모든 패키지를 1+1으로 구입할 수 있다. 365MEAL은 간편하고도 든든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는 간편대용식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이천쌀 등 3가지 타입이다.

고대안암병원 한규만 교수, 생물정신의학회 학술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사진) 교수는 12일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규만 교수는 뇌 MRI 데이터로 분석한 대뇌 피질의 주름 정도가 양극성장애(조울증) 환자의 진단을 도울 수 있는 뇌영상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 외에 한 교수는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분야에서 뇌영상, 유전체, 염색체 관련 바이오마커의 연구로 많은 SCI급 논문을 게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자호 간삼건축 회장, 중앙대의료원에 1억 기부



중앙대의료원(의료원장 홍창권)은 김자호 간삼건축 회장이 2022년 9월 개원하는 중앙대광명병원 건립을 위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간삼건축을 설립한 김자호 회장은 2015년 제 14대 중앙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7월 중앙대학교와 의료원이 함께 출범한 '중앙 메디컬 이노베이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앙대의료원은 '의료혁신의 중앙, 당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중앙대학교와 함께 통합 모금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늘의 날씨			18일(목)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60/70	7 15	10 15	2 13
강릉 0/20	대전 30/30	전주 20/20	9 19	5 17	6 17
광주 20/0	대구 20/0	부산 20/0	6 17	4 18	8 18
창원 20/0	제주 20/0	지역	6 17	11 19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